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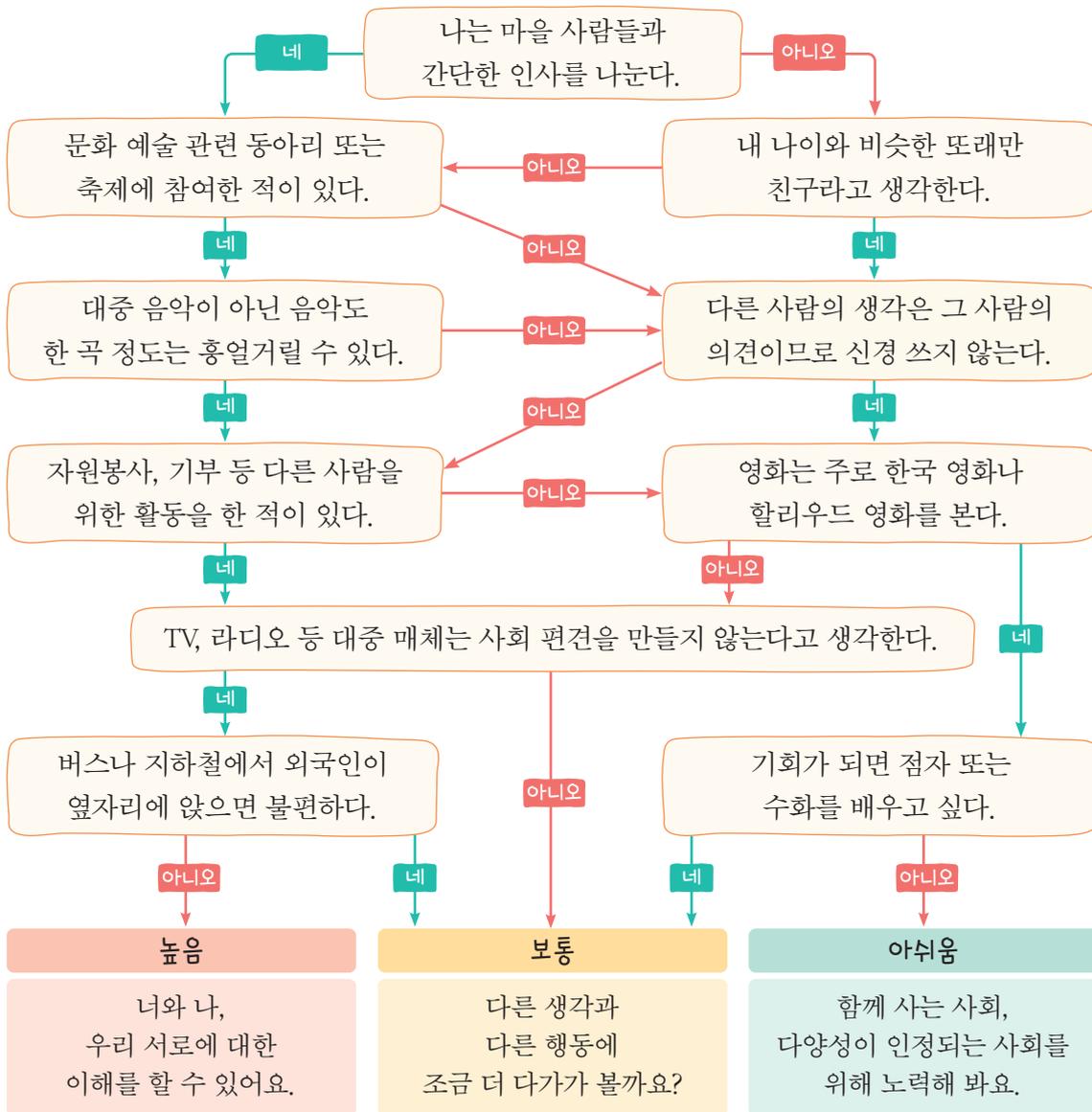
1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 주제가 드러나게 글을 써 봅시다.



다음 검사를 통해 나의 문화 다양성 수준을 알아봅시다.



나의 문화 다양성 수준은 () 입니다.

내 이름은 허황옥



1

내 이름은 허황옥, 내 고향은 인도입니다. 가야국으로 배 타고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지요. 요즘 말로는 국제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는 황후가 됐습니다.



2

요즘 이 나라에 나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수가 어렵잡아 2백만 명이 넘는다더군요.



3

가정을 꾸려서, 직장을 찾아서, 학업을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에 온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다문화'라고 한가지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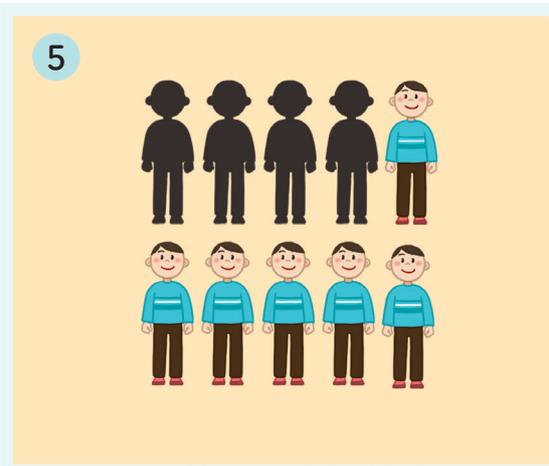
다문화 수용 정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	60.4	50.5	41.5	14.5	51.0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31.8	13.7	21.5	3.5	10.6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55.3	69.1	62.3	82.0	79.5

*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성인 다문화 수용성 53.95점

다양한 나라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이 나라 사람들이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조사했는데, 54점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 중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열 명 중 네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다들 알다시피, 가야는 아름다운 문화가 꽃핀 나라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았던 가야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의 사람들. 어색한 게 당연하죠. 그럴 땐 여러분이 다문화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이 할미, 허황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고, 그 차이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1 「내 이름은 허황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허황옥은 어떤 사람인가요?

2 '다문화'란 무슨 뜻인가요?

3 가야국에 아름다운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4 허황옥은 어떤 마음을 지닌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거울 것이라고 했나요?

2 「내 이름은 허황옥」을 통해 허황옥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내 이름은 허황옥」에서 찾아 써 봅시다.

• 대상을 높여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 문물, 의견, 조건 등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이)라고 한다.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4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편견을 없애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써
봅시다.



5 시를 읽고 말하는 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세계의 아이들

방콕의 뱃집에서 아기가 울었다.
응아응아 하고 울었다.
밀림의 움집에서 아기가 울었다.
응아응아 하고 울었다.

내 고향 초가 마을에서 듣던
우리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나라와 인종은 달라도
울음소리는 모두 같았다.

파타 언덕을 달리며
맨발의 아이들이 깔깔거렸다.
발리의 파도를 안고 뒹굴며
노랑머리 아이들이 깔깔거렸다.

내 고향 들판에서 뛰놀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생활과 말씨는 달라도
웃음소리는 모두 같았다.



● 주제를 찾아 주제가 드러나게 글을 썼나요?





2

가치 있는 삶

◆ 인물이 한 일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써 봅시다.



‘겨울 햇살’이 한 일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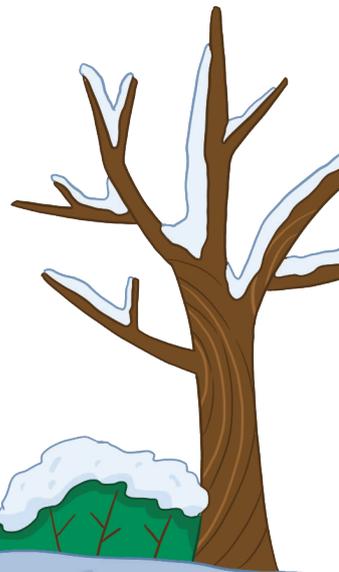
겨울 햇살

어린
겨울 햇살은
걱정도 많습시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잘 있어요?
별일 없지요?

시냇물 속의 피라미에게도
갈색 무늬 다슬기에게도
인사합니다.
들길의 꽃씨와
여린 풀뿌리도 춥지 않을까
시린 손 호호 불며
짧은 해 종일
조금씩 데워 놓고 다닙니다.

어린
겨울 햇살은
할 일도 참 많습시다.



이태석 신부 이야기

모든 사람은 청년 이태석이 의대를 졸업하고 곧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이태석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여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인 수단 남쪽 마을 톤즈로 갔습니다.

톤즈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공포와 상처, 가난이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또 수단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은 물론 가족, 친척, 부족에게까지 당한 대로 보복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의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병원을 세워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한 사람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잠을 줄였고, 멀어서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 먼 곳까지 왕진을 갔습니다. 특히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한센인들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랑받도록 힘쓰라.’라고 말한 요한 보스코 신부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톤즈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톤즈를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할수록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의사뿐만 아니라 건축가, 교사, 지휘자 등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톤즈의 건물 지붕에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해 톤즈

의 밤을 환하게 밝혔고, 톤즈의 미래는 아이들이라며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전쟁과 가난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음악으로 치유하고자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창단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1 「이태석 신부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수단의 남쪽 마을 톤즈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2 이태석 신부가 톤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3 이태석 신부가 늘 마음에 새긴 요한 보스코 신부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2 이태석 신부가 톤즈에서 한 일을 순서대로 네 컷 만화로 그려 봅시다.

1

2

3

4

5 뉴스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



‘남수단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 떠났지만, ‘의사’가 된 제자



앵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다, 마흔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 의대 출신이었던 이 신부는 병원을 짓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줘서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렸었죠. 올해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신부의 모습을 보고 의사를 꿈꾸던 남수단 소년이 어느새 자라서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기사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기자: 지난 2001년 남수단을 찾은 이태석 신부는 선교 활동에 앞서 오랜 내전에 지친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또 병원이 없어 작은 상처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직접 병원을 지어 환자를 돌봤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이태석 신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태석 신부를 따르며 병원에 자주 놀러 갔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타반 아콧(고 이태석 신부 제자): 신부님은 밤에도 거의 주무시지 않았어요. 늘 병원에 남아서 늦게까지 환자를 진료했지요. 또 먼 마을까지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봤어요.

기자: 이태석 신부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 소년은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실제 1년 전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씨와 함께 한국에 온 존 씨도 얼마 전 발표된 의사고시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태석 신부와 후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온 두 명의 제자가 1년 사이 잇따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의사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타반 아콧: 지금 제 모습을 신부님께서 보신다면 등을 두드리시며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기자: 한국어도 서툰 두 소년이 한국에서 의사 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태석 신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존 마옌 루벤(고 이태석 신부 제자):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늘 감동을 받았어요. 제게는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이 늘 감동이었고 그런 신부님의 모습을 닮고 싶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훌륭한 직업이구나, 의사가 되면 신부님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자랐어요.

토마스 타반 아콧: 한국에서 공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수단 사람들을 생각하며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늘 다짐하며 견뎠어요.

기자: 고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꼭 10년입니다. 작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존과 토마스 씨는 한국에서 수련 생활을 마치는 대로 수단으로 돌아가 이태석 신부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 인물이 한 일에 대해 나의 생각을 표현했나요?



3

옛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

◆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을 찾아봅시다.



그림을 보고 어떤 교훈이 담겼는지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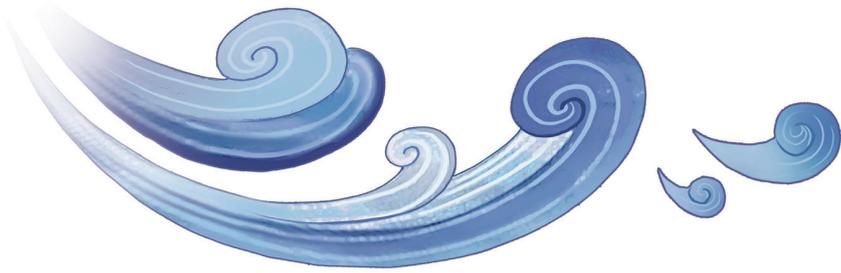
강물에 빠뜨린 칼

한 나그네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명검을 허리에 차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강에 도착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으려고 허리에 찼던 명검을 풀어 배 가장자리에 세워 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크게 흔들렸고, 배 가장자리에 세워 두었던 명검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깜짝 놀란 나그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품속에 있던 단검을 꺼내서 명검을 떨어뜨린 배 가장자리 부분에 x자 표시를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멈추면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뱃사공이 빨리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배 가장자리에 x자 표시를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에 떨어진 곳을 표시해 두었으니 천천히 찾아도 괜찮습니다.”

어느덧 배가 나루터에 도착했고, 나그네는 배에 x자 표시가 된 자리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물 속을 찾아봐도 명검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그네의 모습을 보고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검을 빠트렸던 곳에서 한참을 지나왔는데 그 아래에 칼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제야 나그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요새와 조개를 얻은 어부

옛날에 중국의 조나라와 연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연나라 왕이 소대라는 신하를 조나라에 보내 화친을 청했습니다. 소대는 조나라 왕을 만나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조나라로 오면서 강가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개 한 마리가 햇볕을 쬐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요새가 조갯살을 쪼아 먹으려고 조개 입속으로 부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깜짝 놀란 조개가 열린 입을 다물어 버렸고, 도요새의 부리가 조개껍질 사이에 물렸습니다. 도요새는 오늘과 내일 비만 오지 않으면 조개가 바짝 말라 죽을 것이라고 여겼고, 조개는 조개대로 오늘과 내일 입을 벌려 주지 않으면 도요새가 죽을 것으로 여겨 입을 꼭 닫고 버텼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어부가 도요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망태기에 넣었습니다. 지금 조나라 왕께서는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 주변의 다른 나라가 어부처럼 이익을 얻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대의 말을 들은 조나라 왕은 과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여 연나라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중지하였습니다.

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나그네가 배 가장자리에 x자 표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 3 도요새와 조개의 비유를 들은 조나라 왕은 어떻게 했나요?

2 글에 관련된 고사성어를 찾고 그 뜻을 알아봅시다.

강물에 빠뜨린 칼	고사성어	
	뜻	
도요새와 조개를 얻은 어부	고사성어	
	뜻	



3 그림이 나타내는 알맞은 낱말을 써 봅시다.



• 이름난 칼이나 좋은 칼

--	--



• 나룻배가 떠나고 닿는 곳

--	--	--



•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

--	--

4 글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 써 봅시다.

강물에 빠뜨린 칼	
도요새와 조개를 얻은 어부	

5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찾아봅시다.

상길이와 박 서방

어느 마을에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줏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명이 나이 많은 백정 박상길의 푸줏간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푸줏간에 들어서자마자 한 젊은 양반이 박상길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상길아, 고기 한 근 나오.”

백정 박상길은 “네, 네, 그러지요.” 하며 고기를 한 근 베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고기를 사러 온 또 다른 젊은 양반은 아무리 백정이라지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 박상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박 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백정 박상길은 “네, 네, 그렇게 합죠.”라며 숨쉴 좋게 고기 한 근을 듬뿍 잘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근의 양이 먼저 고기를 샀던 양반의 고기보다 갑절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젊은 양반이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상길이가 이놈!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샀는데 어째서 이 사람의 것은 많고 내 것은 적으냐?”

그러자 백정 박상길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네, 그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저 어른의 고기는 박 서방이 잘랐으니까요.”



배움 다지기

-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 찾았나요?



4

마음의 울림

◆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표현을 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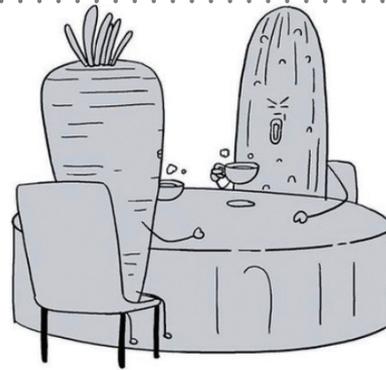


그림에 어울리는 재미있는 말을 빈칸에 써 봅시다.



키크니(Keykney)의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

채소 편식하는
사람을 보면서 채소가
무슨 생각을 할지
그려 주세요.



야, 나도 개 별로야.

목욕하고 나오면
집안 곳곳을 전력 질주하는
저희 집 강아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그려 주세요.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광화문 광장, 바쁘게 지나다가도 한번 눈길을 주면 누구의 발걸음이든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건물 벽면에 커다랗게 걸려 있는 ‘광화문글판’입니다. 길지 않은 한두 줄의 글귀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 때로는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 때로는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1991년 한 회사 창립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광화문글판’은 30여 년 동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든든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자, 헤르만 헤세, 로버트 프로스트, 윤동주, 정현종 등 40명이 넘는 동서고금의 현인과 시인의 작품이 ‘광화문글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화문글판’은 현재 광화문 광장 외에도 서울 강남, 충남 천안,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글귀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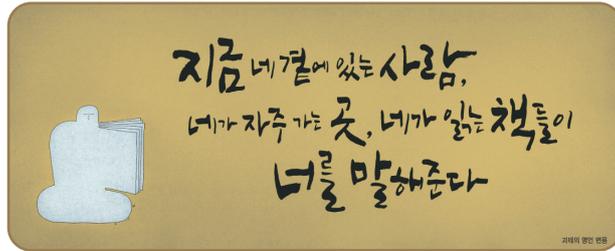
지금까지 걸렸던 ‘광화문글판’ 중에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글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2019년 겨울에 걸렸던 ‘널을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두 개 감복감복’ (윤동주, 「호주머니」)은 추운 겨울,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걱정이 앞서지만 두 주먹을 희망 삼아 씩씩하게 살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 네가 자주 가는 곳, 네가 읽은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괴테)는 2010년 가을에 걸렸던 글귀입니다. 사소한 일상이 차곡차곡 쌓여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가므로 작은 일상도 소홀히 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팽팽한 마음, 튀어 오르는 몸, 그 샘솟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김광규, 「오래된 물음」)는 2018년 봄에 걸렸던 글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뛰놀며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느끼듯 새봄을 맞아 더욱 희망찬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귀가 가장 마음에 남나요?

이처럼 좋은 글은 우리의 마음에 오래 남아 힘을 주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줍니다.

1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광화문글판'에 적힌 글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지니게 된다고 했나요?

- 2 무엇이 '너'를 말해 준다고 했나요?

- 3 뛰놀며 자라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2 말의 표현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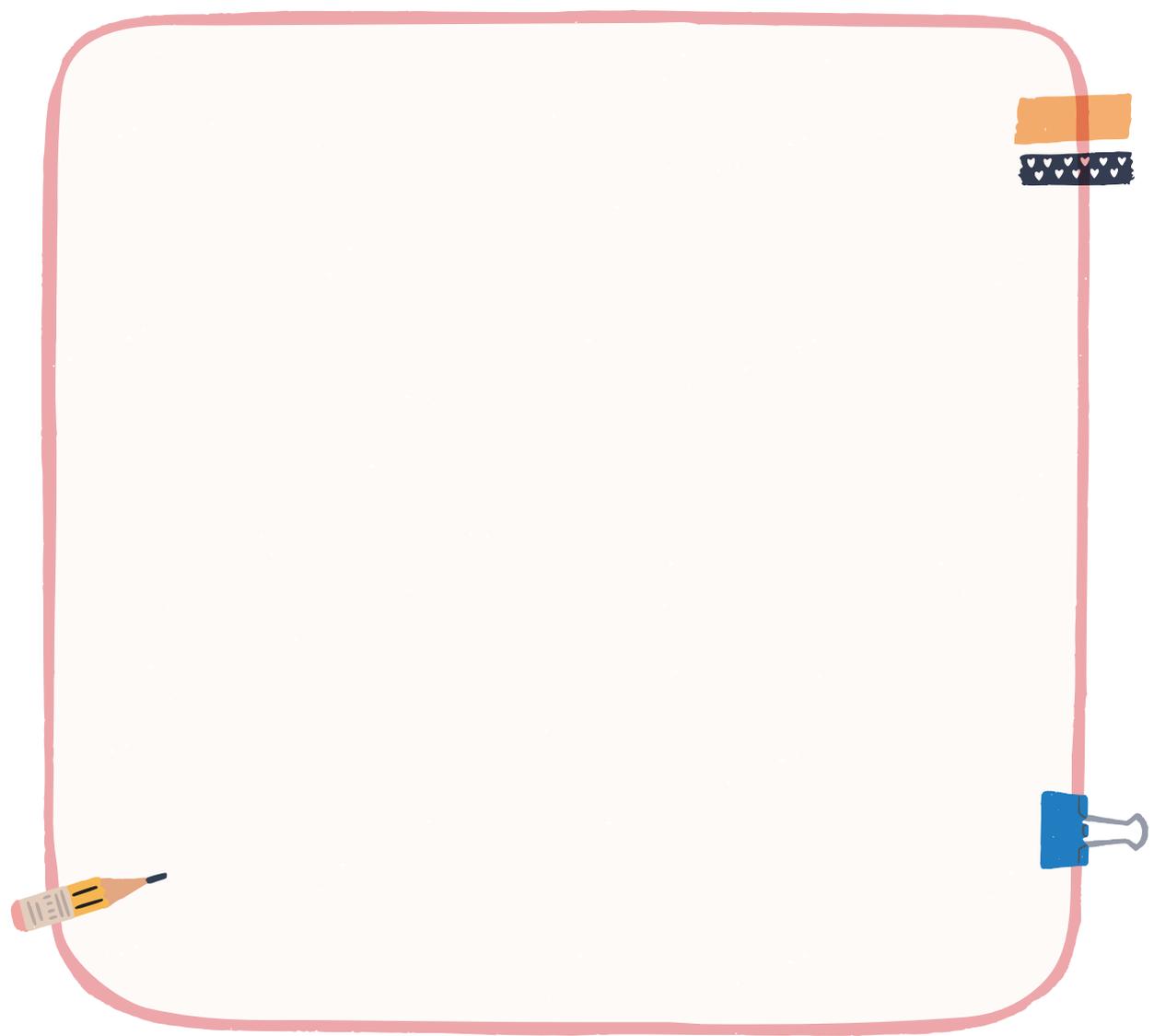
표현	말이 주는 느낌
갑북갑북	
팡팡한	
쌔쌔는	



3 낱말을 이용하여 끝말잇기를 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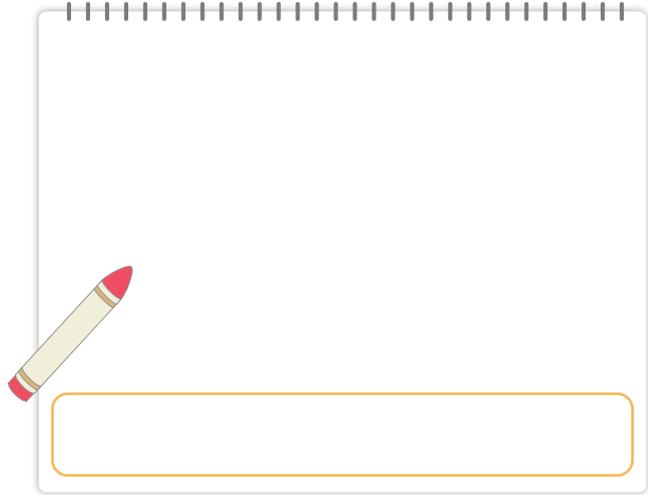


4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글판을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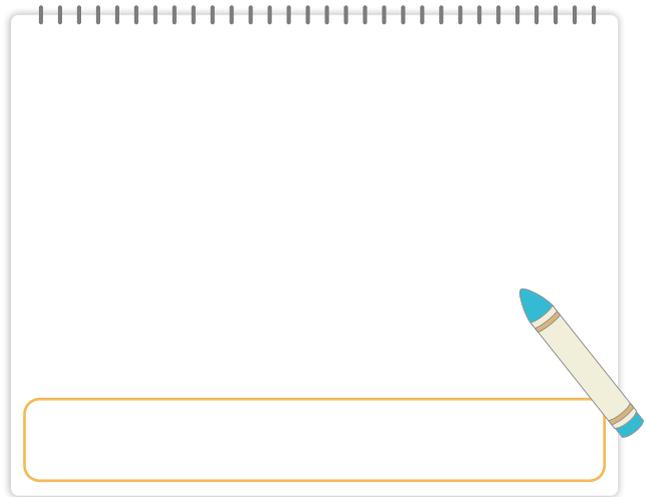


5 상황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봅시다.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운
나의 모습을
그려 주세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책은 어떤 생각을 할지
그려 주세요.



배움 다지기

-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표현을 했나요?



5

내 꿈을 찾아서

◆ 새로운 정보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나의 희망 직업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교사



크리에이터



의사



운동선수



프로 게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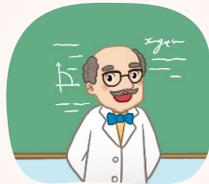
연예인



뷰티 디자이너



요리사



교수



경찰



패션 디자이너



가수



법률 전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직업은 변합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도 함께 변합니다.

교육부와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에서 실시한 ‘2019년 초등학생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는 크리에이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1, 2위는 변동이 없지만 3위가 의사에서 크리에이터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5위를 기록했던 크리에이터의 인기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의사는 4위로 밀렸으며 요리사가 그 뒤를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희망 직업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희망 직업과 비교해보면, 10년 전에는 순위에도 없었던 ‘크리에이터’, ‘생명·자연 과학자 및 연구원’ 등의 직업이 20위권 안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것처럼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업이 새롭게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

- 1 운동선수
- 2 교사
- 3 크리에이터
- 4 의사
- 5 조리사(요리사)
- 6 프로 게이머
- 7 경찰관
- 8 법률 전문가
- 9 가수
- 10 뷰티 디자이너
- 11 만화가(웹툰 작가)
- 12 제과·제빵사
- 13 과학자
- 14 컴퓨터 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
- 15 수의사
- 16 작가
- 17 배우/모델
- 18 연주가/작곡가
- 19 군인
- 20 생명·자연 과학자 및 연구원



미래 사회를 이끄는 일곱 가지 키워드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 사회를 이끄는 일곱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 사회를 이끄는 일곱 가지 키워드는 ‘초연결’, ‘세계화’, ‘소비의 고도화’, ‘하이터치’, ‘저출산 고령화’, ‘자원 경쟁과 지구 온난화’, ‘위험의 일상화’입니다.

냉장고, TV와 같은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분야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 정보 통신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는 더 가까워지고 이러한 ‘세계화’ 사회에서는 항공, 국제 행사, 관광 등과 관련된 직업이 지금보다 더 각광 받을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소비의 고도화’ 현상이 나타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컴퓨터가 아닌 사람과 소통하며 인간적인 따뜻함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이터치(high-touch)’라고 합니다. 하이터치 시대에는 예술, 영상, 여행, 음식 등과 관련된 분야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나타날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사회 복지와 보건, 의료 관련 직업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또 자원이 부족해지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심해지는 ‘자원 경쟁과 지구 온난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 분야의 직업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도 더 많아지는 ‘위험의 일상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안전, 보안과 관련된 직업이 성장할 것입니다.

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 바뀐 3위 직업은 무엇인가요?

2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미래 사회를 이끄는 일곱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한 가지 키워드를 고르고 새롭게 생겨날 직업, 하는 일, 갖춰야 할 능력 등을 상상해 써 봅시다.

키워드	
직업	
하는 일	
갖춰야 할 능력	



3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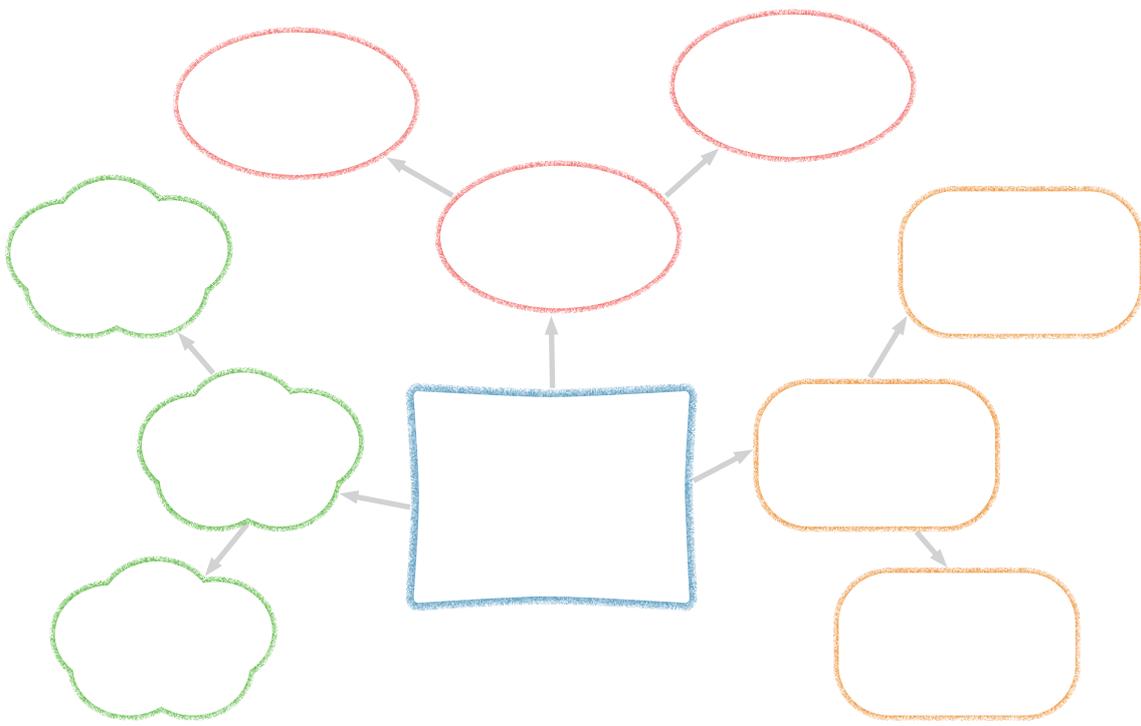
보기 크리에이터 사물 인터넷 하이터치

•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내는 사람

• 고도의 기술이 도입되면 될수록 인간적이고
따뜻함을 원하게 되는 인간적인 반응

• 냉장고, TV, 에어컨과 같은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

4 글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찾아 생각 그물로 정리해 봅시다.



5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정보를 찾아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a light blue border and four horizontal lines, intended for writing an introduction or description of the chosen profession.



● 새로운 정보를 찾아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했나요?



6

지붕 없는 박물관

◆매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 글을 써 봅시다.



매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았던 경험을 말해 봅시다.



▲ 현장 답사



▲ 인터넷



▲ 지역 신문



▲ 전문가 인터뷰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강화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가장 큰 섬으로, 삼국 시대부터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 고구려의 영토에 속하였던 400년경에는 ‘혈구·갑비고차’라고 하였고, 신라에 귀속된 뒤에는 ‘해구군·혈구진’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939년 강화현, 1895년 강화군으로 바뀌었고, 1915년 교동면과 통합되었다. 1973년 강화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였고,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통합되었다.

그러면 역사가 깊은 강화도에는 어떤 문화재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참성단



1) 참성단

마니산에 있으며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쌓은 제단이라고 전한다. 고려 원종 11년(1270)에 보수했으며, 조선 인조 17년(1639)과 숙종 26년(1700)에도 고쳐 쌓았다. 여러 번 고쳐서 쌓았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제단은 자연석으로 둥글게 쌓은 하단과 네모반듯하게 쌓은 상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둥근 하단은 하늘, 네모난 상단은 땅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런 모습은 경주의 첨성대와 비슷하다.

해마다 개천절에 제천 행사가 거행되며, 전국 체전의 성화는 이곳에서 태양열을 이용하여 붙이고 있다.

2) 초지진

해상에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하여 조선 효종 7년(1656)에 구축한 요새이다.

안산의 초지랑에 수군의 만호영이 있었던 것에서 처음 비롯되었는데, 1666년에 초지랑영을 이곳으로 옮긴 뒤 ‘진’으로 승격되었다. 1870년대에 미국과 일본이 침략하였을 때 이들과 맞서 싸운 곳으로, 1871년에 미국 해병이 초지진에 침략해 왔을 때 전력의 열세로 패하여 점령당하였다. 이때 무기고, 화약창고 등의 군사 시설물이 모두 파괴되었다.

일본이 조선을 힘으로 개항시키기 위해서 파견했던 운양호의 침공은 고종 13년(1876)의 강압적인 강화도 수호 조약으로 이어져 일본 침략의 문호가 개



초지진

방되었다. 그 뒤 허물어져 돈대의 터와 성의 기초만 남아 있었으나 1973년에 초지진을 복원하였다. 민족 시련의 역사적 현장이었던 이곳은 호국 정신의 교육장이 되도록 성곽을 보수하고 당시의 대포를 진열하였다.

3) 덕진진

고려 시대에 강화 해협을 지키던 외성의 요충지이다. 병자호란 뒤 강화도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내성·외성·돈대·진보 등의 12진보를 만들었는데, 그중의 하나이다.

조선 효종 7년(1656)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해군 주둔지에 속해 있던 덕진진을 덕포로 옮겼으며, 숙종 5년(1679)에 용두돈대와 덕진돈대를 거느리고 덕진포대와 남장포대를 관할함으로써 강화 해협에서 가장 강력한 포대로 알려져 있었고, 강화 12진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키고 있었다.



덕진진

1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강화도는 삼국 시대부터 어떤 역할을 했나요?

2 참성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병자호란 뒤 강화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2 초지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1 어떤 일이 일어난 곳인가요?

2 언제 만들어졌나요?

3 왜 만들어졌나요?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에서 찾아 써 봅시다.

• 예배나 제사를 위한 도구·제물·제기 따위를 올려놓는 단을

(이)라고 한다.

•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튼튼히 만든 방어 시설을
(이)라고 한다.

•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을 (이)라고 한다.



4 다른 지역과 달리 강화도에 전쟁과 관련된 유적이 많은 이유를 지도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5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시다.

방법		장점	단점
문화 자료 수집	잡지, 지역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수집이 어렵다.
	향토지, 역사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가 풍부하다. •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과 정리가 어렵다.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절약된다. • 자료가 풍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가 너무 많아 필요한 것을 정확히 찾기 어렵다. • 틀린 정보도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
현장 자료 수집	현장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녹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문헌 조사가 필요하다.

6 자료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알고 싶은 정보를 찾아봅시다.

알고 싶은 주제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한 이유	
새롭게 찾은 정보	



● 매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 글을 썼나요?



7

하나뿐인 지구

◆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



공익 광고가 전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009 대한민국 환경광고 우수작

쓰는 물이 많으면,
먹는 물이 부족해집니다

지구 전체의 물 중 1%만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며,
가정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물은 1%의 식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절약하세요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음식도 결국 돈입니다

먹는 게만 남기는 게만
그렇게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배에 800원
음식을 쓰레기통 중에는 일
나 한사람의 살림에서 시작됩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일회용 나무?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은 일회용이지만
종이컵의 원료가 되는 나무는 20년을 자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한 통에 약 100%의 정도에
1만 2천분의 1인 종이컵은 매년 나무 4,000천 그루를 삼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회용을 사용 줄이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쓰면 쓸수록
숲이 지워집니다

송원지를 한번 이용할 때 나오는
CO2의 양은 약 4g입니다 (80cm 20cm 750)

티엔 일수록 온실효과 심해져 숲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송원지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자연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물 스트레스 국가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1700톤 이상이면 물 풍요 국가, 1000톤~1700톤이면 물 스트레스 국가, 1000톤 이하이면 물 기근 국가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도 흐르고 비도 많이 오는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에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현상이 흔히 일어납니다. 게다가 작은 나라에 인구도 많아서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차 줄고 있고 여기에 가뭄까지 더해지면 물은 더욱 부족해집니다.

다음의 표는 우리나라 물 사용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1965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인구는 1.5배 정도 늘었지만 물의 사용량은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물 사용량과 인구 변화

(단위: 천억 톤)

구분 \ 연도	1965년	1980년	1990년	1998년	2020년
물의 총량	1100	1140	1267	1276	1276
물 사용량	51.2 (4.6%)	153 (13.4%)	249 (19.6%)	331 (26%)	381 (29.8%)
인구(명)	3천 3백만	3천 8백만	4천 3백만	4천 5백만	5천 1백만



2020년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280리터로 이는 유럽 사람들과 비교해 약 2배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20년에는 연간 4.4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을 아끼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사용한다면 언젠가는 물 스트레스 국가가 아닌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대비하려면 물 사용량을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점차 심각해져 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UN)도 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992년 11월, 제47차 유엔(UN) 총회에서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3월 22일부터 매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UN)은 물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003년을 ‘세계 물의 해’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유엔(UN)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 10명 중 3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일 약 1천 명의 어린이가 깨끗한 물만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 설사병 등의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가올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물 절약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물 스트레스 국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물 기근 국가, 물 스트레스 국가, 물 풍요 국가'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2 유엔(UN)에서 '세계 물의 날'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2 「물 스트레스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기근 풍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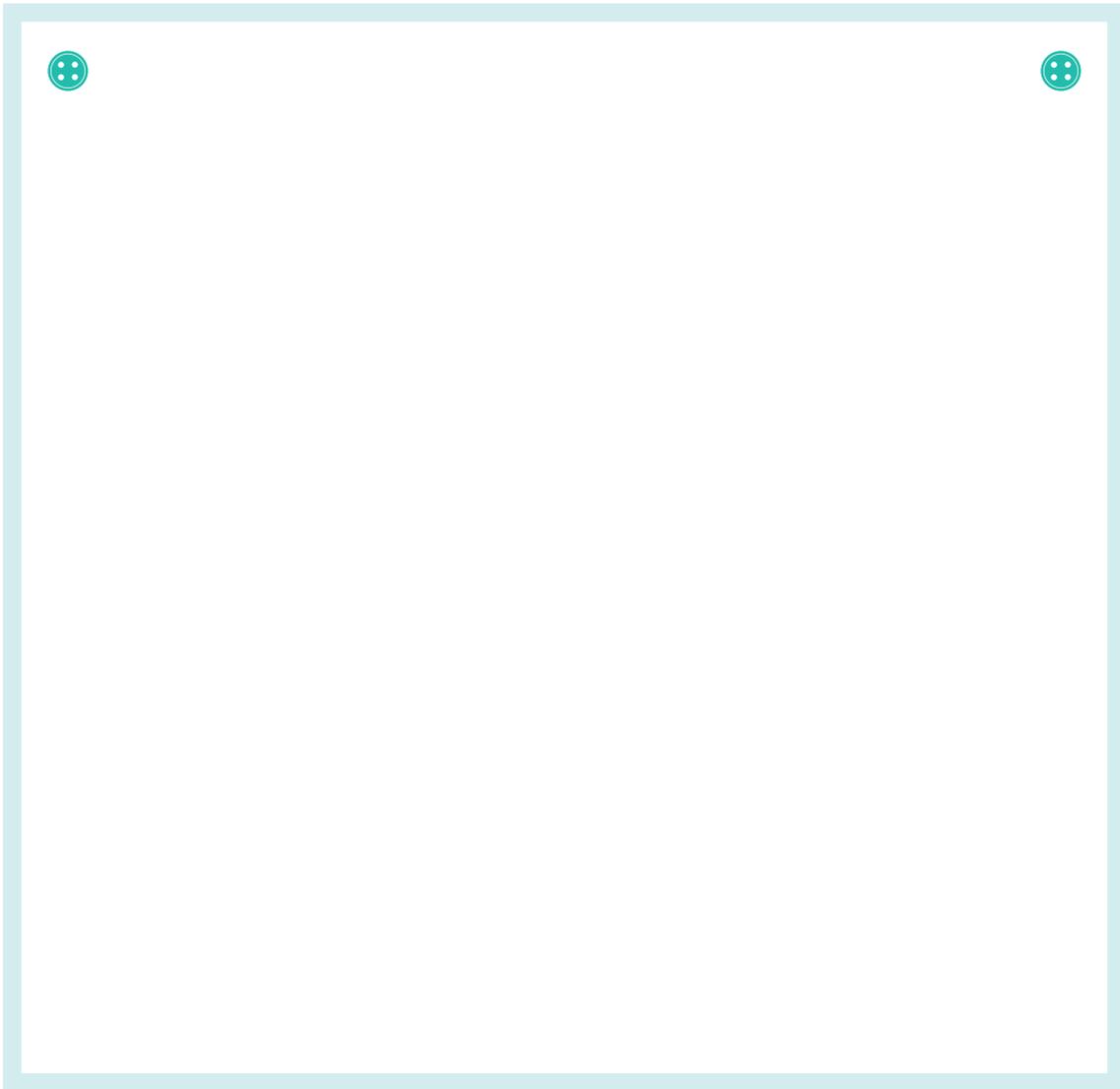
- 많아서 넉넉한 것을 (이)라고 한다.
-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는 것을 (이)라고 한다.
-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을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미래 물 부족을 대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강물이나 빗물, 지하수 이용, 오염된 물 처리, 바닷물 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시 전체의 물 사용량을 예측하고 물의 사용량과 공급량을 조절해 물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나 눈이 왔을 때, 물을 새지 않게 모아두었다가 실시간 네트워킹과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보냄으로써 물 낭비를 없애는 기술입니다.

5 공익 광고에 제시된 문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해결 방안을 알리는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배움 다지기

●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나요?





8

즐거로운 민주 생활

◆ 토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내 경험을 통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자리 바꾸기'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말해 봅시다.



자리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글쎄...

어떤 방법이
좋았지?



자리 바꾸기

“4학년 3반에 배정된 친구는 태형, 정국, 혜영, 소리입니다.”

선생님께서 3반으로 진급할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 주셨다.

“와우, 대박! 정국이와 소리랑 같은 반이네. 야, 정국이 좋겠다. 축하! 축하!”

태형이 말에 반 친구들이 정국이와 소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정국이와 소리는 3학년에서 공식 커플이었는데 4학년 때 같은 반이 된 것이다.

4학년 등교 첫날, 선생님께서 자리를 정하자고 하셨다.

“선생님, 좋아하는 친구랑 앉아요. 정국이랑 소리가 커플인데요. 서로 짝하게 해 주세요. 정국이 소원이래요.”

태형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아이들이 소란스러워졌다.

“정국아, 태형이 말이 사실이니? 소리랑 꼭 앉고 싶어?”

“아……. 네. 짝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말씀에 당황한 정국이는 친한 소리랑 단 한 번도 짝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 내어 말했다.

“그래? 정국이 소원이라니 좋아하는 사람끼리 짝꿍 할까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짝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은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동안 석진이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친하다고 같이 앉으면 둘이서 속닥거리고 수업 시간에도 떠들기만 할 것 같아요. 사실 3학년 때도 시끄러웠어요.”

같은 반에서 온 혜영이도 거들고 나섰다.

“그리고 소리는 키가 아주 작고, 정국이는 키도 덩치도 엄청 큰데, 같이 앉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정국이 때문에 칠판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야, 내가 큰 게 죄니? 큰 사람은 맨 뒤에 앉아야만 하는 거야? 칠판 글씨가 안 보이면 나가서 보면 되지. 왜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시비야?”

참고 있던 정국이가 화를 내며 지민이를 쏘아봤다.

“자, 여러분. 이제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반 친구 모두가 공평하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오세요. 내일 토의를 통해 정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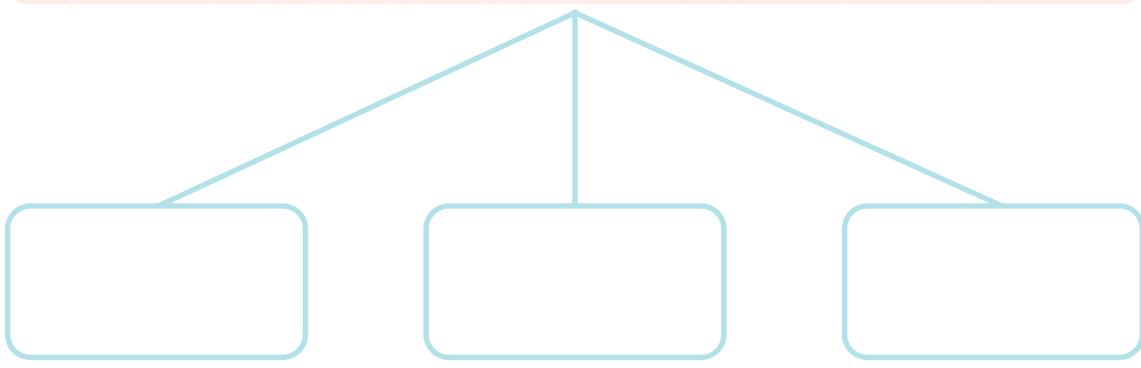
선생님께서서는 알림장에 ‘공평하게 자리 바꾸는 방법’이라고 쓰시고, 가장 좋은 한 가지를 방법을 생각해 오라고 하셨다.





3 '공평'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낱말을 써 봅시다.

공 평 어느 한쪽에 손해나 이익이 치우치지 않는 것



4 우리 반은 어떤 방법으로 자리를 바꾸면 좋을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이름	의견

5 아래 주제 중 한 가지를 골라 친구와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써 봅시다.

- 주제 1. 반 친구들 번호를 어떻게 정할까?
- 주제 2. 급식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 주제 3. 청소 당번을 어떻게 정할까?

주제: _____

구분	의견	근거
나		
친구		
우리		



● 토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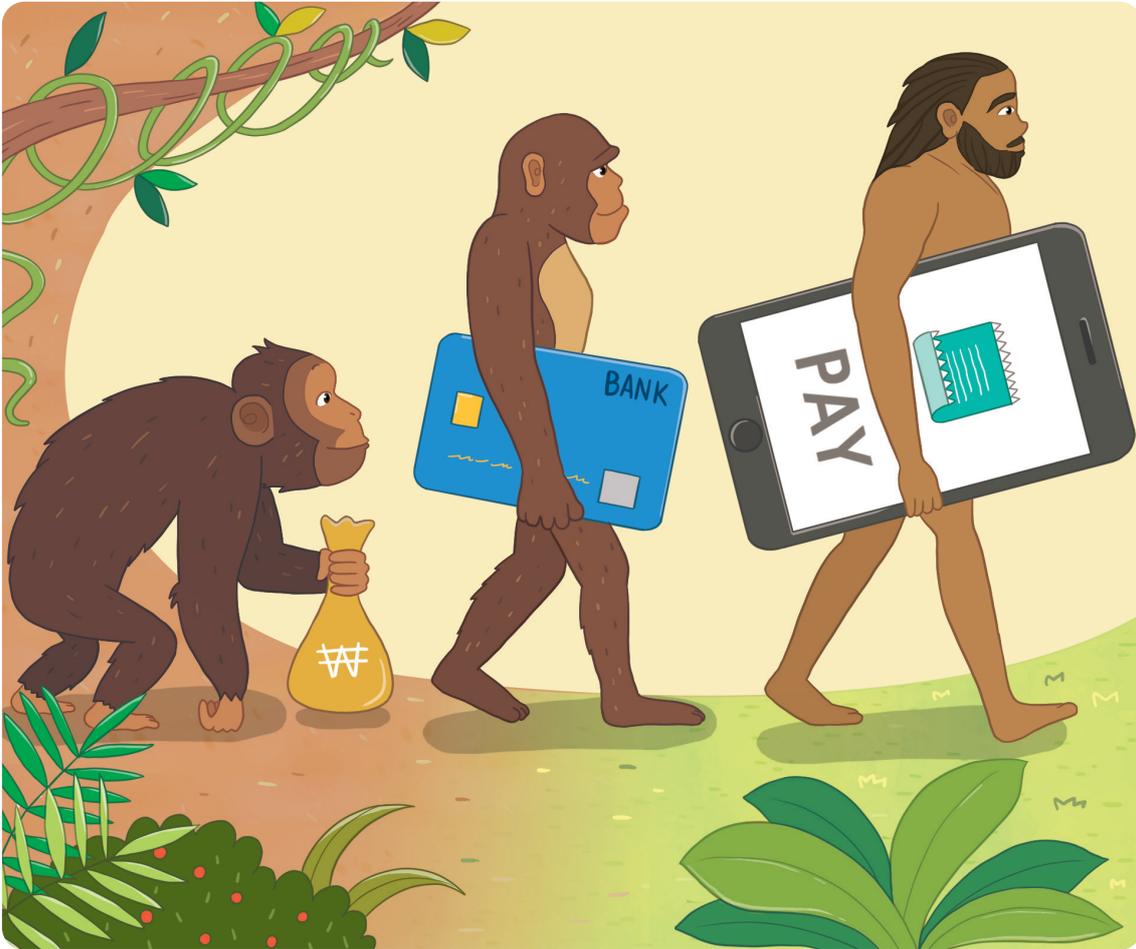
9

화폐의 미래

◆ 글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일을 써 봅시다.



그림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써 봅시다.



화폐의 역사

요즘에는 굳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 화폐’라는 것까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화폐는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 왔을까요?



조개 화폐



소금

인류 초기에는 조개껍데기, 짐승 가죽, 옷감, 토기, 쌀, 소금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물품 화폐’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품 화폐’는 들고 다니기 무겁고 시간이 지나면 상하기도 해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금속 화폐’입니다.



해동통보



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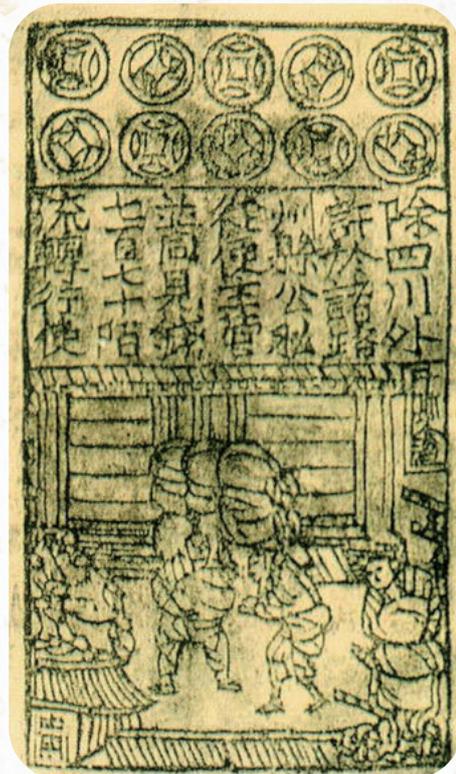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금속 화폐’는 오래 두어도 훼손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가치를 인정받는 화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금속 화폐에 황제의 얼굴을 새기기도 했으며,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에 '해동통보'라는 금속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 원나라에서는 '종이 화폐'를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외국 상인들이 교역을 위해 갖고 온 금속 화폐를 황제의 국새가 찍힌 종이 화폐로 교환해 사용하도록 한 다음 돌아갈 때는 다시 금속 화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화폐는 물품, 금속, 종이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전, 지폐, 신용카드, 전자 화폐, 가상 화폐 등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화폐가 사용될까요?



중국 원나라의 종이 화폐



수학으로 만든 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2009년 처음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가상 화폐의 한 종류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미국의 온라인 음식 주문 사이트 등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실제 물건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학으로 된 암호를 풀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 문제 풀이에 도전합니다. 수많은 계산과 검토 끝에 문제를 해결하면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이때 제시되는 수학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1대를 이용해서 약 5년 정도 계산하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 문제는 풀면 풀수록 어려워지게끔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 1대를 이용해서 수십 년 동안 계산해도 풀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버 머니와 같은 비트코인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이유는 위조나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편리하며 비밀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화폐에 비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인류 초기에 화폐로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2 물품 화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무엇인가요?

3 비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나요?

2 글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사용 순서	화폐의 종류	설명
1	물품 화폐	조개껍데기, 짐승 가죽, 옷감, 토기, 쌀, 소금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한 화폐
2	() 화폐	
3	() 화폐	종이로 만들어진 화폐
4	가상 화폐	



3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에서 찾아 써 봅시다.

-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이)라고 한다.
-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임금의 도장을 (이)라고 한다.
-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든 것을 (이)라고 한다.

4 미래에는 어떤 화폐가 사용될지 예상해 봅시다.



5 「기차 타는 노인들」을 읽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디지털 소외 계층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써 봅시다.

기차 타는 노인들

스웨덴의 한 도시 룬드에 사는 닐슨 씨는 현금이 필요하면 기차를 타고 30분 거리의 말피로 간다. 왜냐하면 닐슨 씨가 사는 룬드에는 현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 혼자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현금이 익숙한 그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다. “나 같은 노인은 현금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주위에 많이 있었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사회 변화를 한탄했다.

스웨덴 은행의 절반 이상은 더는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다. 대다수 가게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 송금·결제 앱으로 결제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유럽 은행 지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수를 계속 줄이고 있다. 전 세계가 현금 거래가 아닌 신용카드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방법이 변하고 있다. “심지어 전통 시장에서조차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결제만 가능해요. 저를 비롯한 노인 대부분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라고 닐슨 씨가 말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노인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배움 다지기

- 글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일을 써 보았나요?



10

따뜻한 배려 큰 감동

◆ 알맞은 이유를 들어가며 의견을 펼쳐 봅시다.



지하철 의자에 인형이 놓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써 봅시다.



임산부 배려석

임신한 여성은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몸이 무거워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임신 전에는 간단하게 했던 일도 임신을 하면 금방 힘들음을 느낀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쉬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임산부들을 배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하철 객실에 임산부 배려석이 등장하였다. 지하철 객실 가운데 7인석 중 가장자리 2개를 임산부 배려석으로 배정한 것이다.

처음에는 좌석 위쪽에 간단히 안내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로 임산부 배려석을 표시하였다. 요즘에는 의자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바닥에도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더 확실히 구분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하였다. 임신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남성이나 나이 많은 여성의 모습이 각종 SNS[●]에 게시되면서 이 모습을 두고 다양한 내용의 댓글이 달린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임신부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어 있는 임신부 배려석에 잠깐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고 옹호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늘 자리가 부족하다. 하지만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임신부 배려석이 비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임신부가 아닌 사람이 앉을 경우 지하철 이용객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다.

● 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견 1

“임산부 배려석은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에요. 완전 탁상행정이지요. 그러니 비어 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지 말고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켜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임산부 배려석 대신 차라리 임산부들에게 택시 쿠폰을 지급하는 게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의견 2

“임산부 배려석은 무조건 비워두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그때 비켜 주면 된다고 말하지만 초기 임산부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또 임산부가 자리를 비켜 달라고 먼저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비워두는 것이 필요해요.”

임산부 배려석은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임산부 배려석」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임산부 배려석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임산부 배려석은 어떻게 표시하여 구분하고 있나요?

3 임산부 배려석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2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의견 1	
의견 2	



3 설명하고 있는 낱말을 「임산부 배려석」에서 찾아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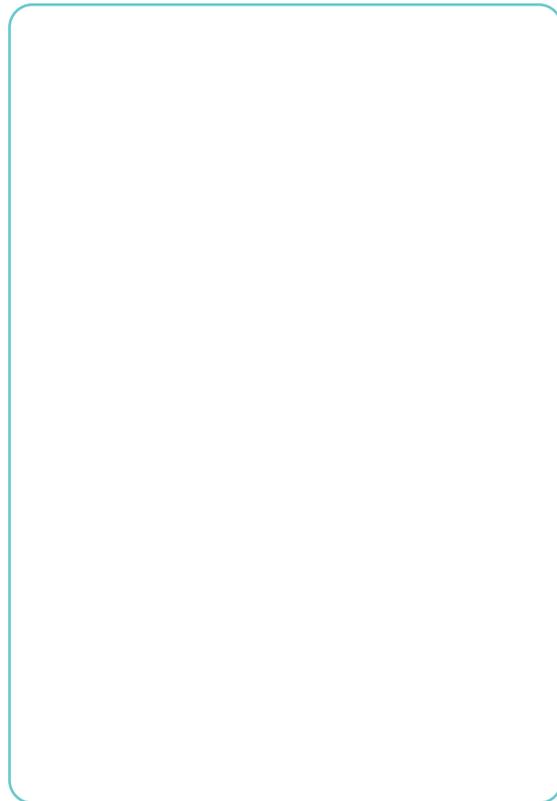
•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어떤 대상을 편들어 지킴.

•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나의 의견을 써 봅시다.

5 책 표지처럼 임산부 배려에 대한 의견을 캠페인 자료로 만들어 봅시다.





- 알맞은 이유를 들어가며 나의 의견을 제시했나요?



11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고 의견을 펼쳐 봅시다.



산양이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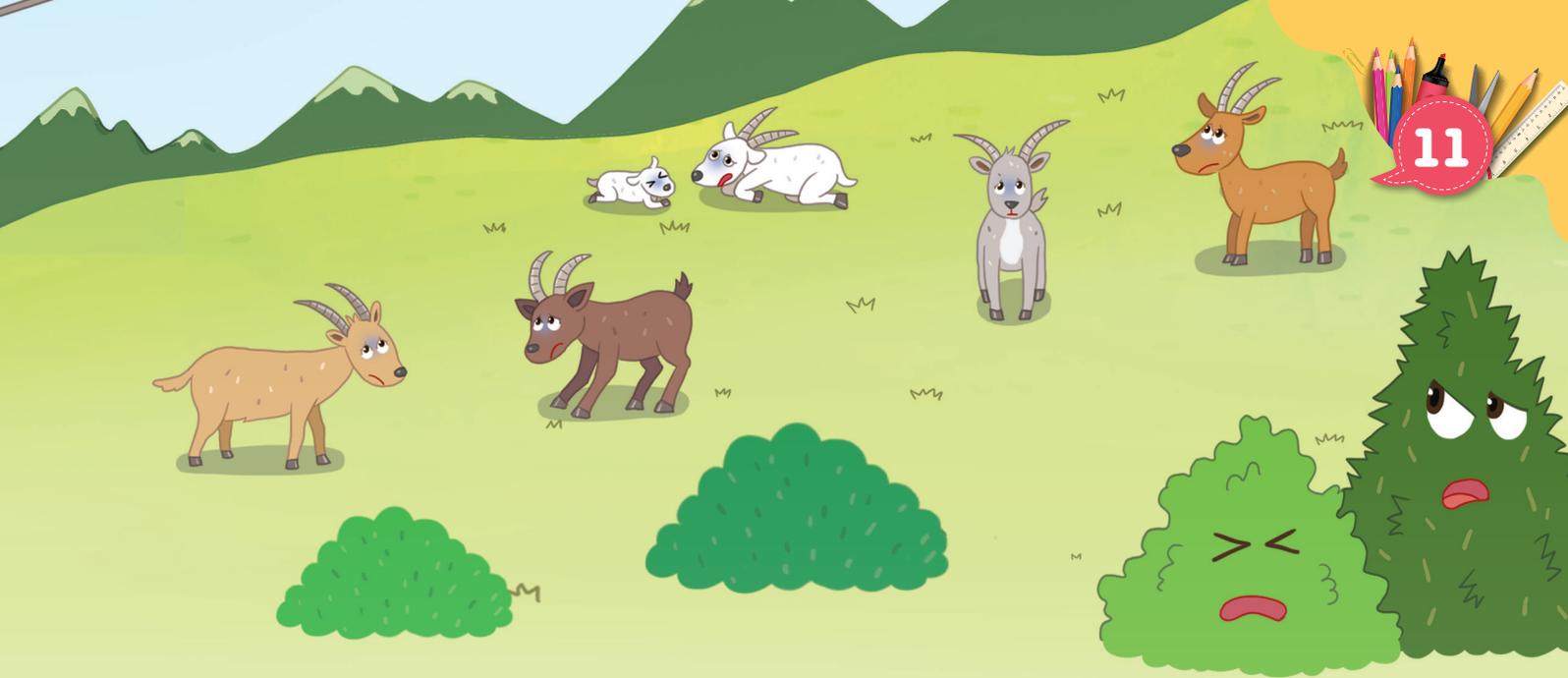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할까?

설악산은 한라산,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으로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에 걸쳐 있다. 설악산에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설악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다. 이 케이블카는 설악동 소공원에서 권금성까지 약 1.1km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한 번에 최대 5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케이블카 외에 또 다른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양군청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 지구의 하부 정류장에서 설악산 끝칭 상부 정류장까지 3.5km 구간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양군청은 환경부에 공원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설악산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을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설치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2012년과 2013년에도 추진됐지만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허가해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 양양군 오색 지구는 국립 공원, 천연 보호 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 지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 구역, 백두 대간 보호 지역 등 5개의 서로 다른



보호 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양군청은 ‘지역 경제와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약 1520억 원으로 예상했다.

양양군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등산객들이 등산로로 다니는 것을 제한해 오히려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다. 또 케이블카 운영 수익의 15%는 환경 관리와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쓰겠다.”고 말하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의 반대도 거세다. 환경 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이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인 산양과 하늘다람쥐, 200년이 넘는 나무들의 서식지임을 확인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설악산 정상에 수많은 관광객이 다니게 되고, 환경이 파괴돼 야생 동물과 식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제 개발이 먼저냐, 환경 보존이 먼저냐를 두고 양양군청과 환경 단체의 뜨거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할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강원도 양양군 오색 지구의 케이블카 설치는 몇 번 추진되었나요?

2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구역에 사는 멸종 위기 동물은 무엇인가요?

3 오색 지구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양양군청과 환경 단체의 주장은 각각 무엇인가요?

2 양양군청과 환경 단체가 주장하는 의견의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양양군청)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 단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3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 허가:

• 파급:

• 훼손:

4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의견을 쓰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내 의견	나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 반대)합니다.
내 의견에 대한 이유	
친구들이 말하는 내 의견의 문제점	
내 의견에서 보충할 점	

5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을 어디까지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써 봅시다.

지나친 관광 편의 시설, 중국 곳곳 훼손

중국에는 관광 편의 시설을 지나치게 개발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곳이 많다.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로 유명한 후난성과 장자제(장가계)는 엘리베이터가 완공된 뒤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신음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장자제(장가계)

중국 3대 명산 중의 하나인 황산, 후베이성 은스 협곡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세계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되었다.

중국 정부와 관광 기업은 이러한 편의 시설로 인해 많은 관광 수익을 얻고 있다며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대자연의 풍경을 기대하고 갔다가 수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사람 뒤통수 구경만 하고 왔다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수천 년 역사 유적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곳곳에 간직하는 중국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론 편의 시설 설치로 인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대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인공적인 개발은 자연과 역사가 주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때로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기까지 한다.

과연 자연은 어디까지 개발하는 것이 좋을까?



배움 다지기

-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고 나의 의견을 제시했나요?





12

건강한 성장

◆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로 써 봅시다.



나의 식습관을 점검해 봅시다.

나의 식습관 상태 점검하기

1 하루에 우유를 1컵 이상 마신다.

2 하루에 물을 2컵 이상 마신다.

3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4 식사할 때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

5 식사할 때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

6 과일을 자주 먹는다.

7 단 음식(초콜릿, 사탕, 탄산음료 등)을 자주 먹는다.

8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등)를 자주 먹는다.

9 라면을 자주 먹는다.

10 한 끼 식사 시간이 30분 이상 걸린다.

마른 몸매는 자신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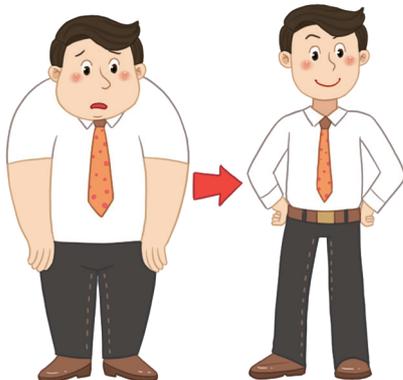
요즘 학교에서는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급식 시간에도 서로 조금 받으려고 하고, 밥이나 반찬을 많이 받는 친구를 외계인 보듯 합니다. 또 살이 찐 사람은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날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학교에서 보면 살이 찐 친구들은 자신감도 없고, 날씬한 친구에 비해 친구도 적습니다. 체육 시간에 게임을 할 때, 혹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이할 때 살이 찐 친구들과는 같은 편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이 찐 친구와 짝을 하면 책상이 좁아서 불편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떠나 살이 찐다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들까지도 고혈압,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식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동은 부족하고 먹는 것은 고칼로리 식품 위주이기 때문에 살이 찌고, 또 다시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다이어트를 한 후 살이 빠진 친구들은 일단 자신감이 넘치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남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늘 뒤쪽에 있기만 하던



친구가 살을 뺀 후에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교실 앞으로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도 마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마른 몸매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몸매 때문에 건강이 위험하다

‘얼짱, 몸짱’이라는 용어가 떠돌면서 어른들뿐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에게 이르기까지 외모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몸매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른 몸매 증후군’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른 몸매 증후군은 ‘아름다운 몸매는 마른 몸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날씬한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깡마른 몸매가 많은 청소년의 꿈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대부분 다이어트를 해 본 경험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몸무게 조절을 위해 잘 먹지 않거나 먹은 것을 토해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창 성장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거식증과 폭식증은 물론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영양 부족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뇌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심한 다이어트로 빼빼 마른 몸매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살이 찐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2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여 살이 빠진 친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했나요?

3 '마른 몸매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은 무엇인가요?

2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찾아 써 봅시다.

마른 몸매는 자신감이다	
마른 몸매 때문에 건강이 위험하다	

3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 고혈압:

• 당뇨병:

• 거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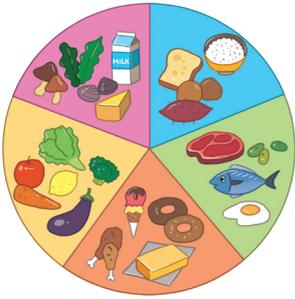
• 폭식증:

4 마른 몸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로 써 봅시다.

5 글을 읽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실시하는 다이어트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세 끼의 식사를 저지방식, 저열량식으로 하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또 한 끼의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을 먹지 않으며, 저녁 6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실천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음식은 매우 중요하다. 음식에 들어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이 있는데, 이들 영양소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골고루 적당한량을 먹어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비만 전문가는 “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루 한 시간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체중의 10%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운동할 때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걷기, 조깅, 완만한 경사지의 등산, 아쿠아 에어로빅, 수영 등이 있다.

또 우리 몸의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래달리거나 줄넘기와 같은 유산소성 운동을 선택해 매주 5~6일간 30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하지만 운동의 강도가 높으면 지방의 사용이 줄어들고, 또 운동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운동으로 인해 식욕이 자극되어 식사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배울 다지기

-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로 썼나요?

